第268回國會
(臨時會·閉會中)

國防委員會會議錄

第 6 號

國 會 事 務 處

日 時 2007年8月21日(火)

場 所 國防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공청회 개최의 건
2.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審査된案件

1. 공청회 개최의 건 ····· 1
2.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 ····· 2
   가. 국방부 소관

(10시19분 개의)

○위원장 김성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국회 제6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 7월 말에 우리 위원회에 전보되어 온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3년 동안 수고해 주신 권태하 수석께서는 그만두시고 입법고시 출신이시고 전에 국방위 입법심의관 그리고 국회의 국제국장 등 외교·안보 쪽 일을 많이 해 오셨습니다.

새로 오신 권대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인사)

앞으로 잘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이신데.

(일동 박수)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남북정상회담이 당초 이달 말 열릴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북한의 수해 복구 등의 사정 때문에 10월 초로 연기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회담은 비록 연기되었습니다마는 남북정상회담이 좀더 효율적인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방 분야에 관련된 현안을 심의해 보고자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는 우리 위원회가 매년 해 온 을지연습 참관을 위해서 용산의 합참 군사종합상황실로 버스로 이동해서 참관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0시22분)

○위원장 김성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공청회 개최의 건을 먼저 상정하겠습니다.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에게 채용시험에서 2% 범위 내의 가산점을 부여하는 고조흥 의원 발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우리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서 지난 6월 25일 전체회의에서 동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또 여성가족부 등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동 법안을 전체회의에 계류시키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실에서 실무적으로 공청회 개

최 준비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회법상 요구되는 의결 절차는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그 절차를 밟고자 합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군 가산점제도 도입 관련 공청회를 9월 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최하여 진술인 4인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난 후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공청회를 진행하도록 하고 공청회 관련 변경사항이나 세부사항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들에게 위임해 주시면 협의하여 결정하고자 합니다.

유인물을…… 지금 되나요?

○입법조사관 이성기 배부 다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배부 다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앞에 와 있는 노트북을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청회 개최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다음 주 의사일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국가안전보장회의) 그리고 200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또 2006회계연도 기금결산 등을 심의하기 위해 8월 27일 월요일 아침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소관 업무를 심사하고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병무청과 국가안전보장회의 관련 사항을 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월 28일 10시부터는 우리 국방위원회의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되겠습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들께서는 일정에 차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월 29일 오후 2시에 국방위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또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기금결산 등의 사항에 대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2.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

가. 국방부 소관

(10시26분)

○위원장 김성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남북정상회담 관련 현안보고 및 질의응답을 상정하겠습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인사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김장수 존경하는 김성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국방 분야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초 다음 주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일정 변경 요청을 수용하여 10월 2일부터 4일까지로 변경되어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번에 개최되는 정상회담은 기존의 남북관계를 한 차원 높게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회담이 남북 간 공동 번영과 신뢰구축의 획기적 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도 기존 합의된 군사관련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고 남북관계 발전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정상회담의 의제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들을 최대한 반영하여 남북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은 비공개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성곤 수고하셨습니다.

국방부에서 비공개회의 요청이 있었고요, 양당 간사들께서도 비공개회의를 양해해 주셨습니다.

언론인 관계자와 보좌진 여러분들 중 비밀취급인가가 없어서 비공개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분들은 퇴장하셔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예, 황진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시지요.

○황진하 위원 비공개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앞으로 다가올 남북정상회담에서 토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우려심에서 장관 계시는데 몇 가지 확실한 강조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의제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NSC에서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의제에 관한 각 부처의 의견을 조율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때 이런 분명한 국방부장관으로서의 입장을 전달해 주기를 당부하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국회 내의 북한 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통제 이양반대 국회의원 모임하고 국회 안보와 동맹 연구 포럼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 북한 핵 해결이 최우선이다, 종전 선언과 평화체제의 논의는 그다음에 하라, 이런 것을 성명을 발표했는데 장관님 보셨습니까?

○국방부장관 김장수 예, 봤습니다.

○황진하 위원 여기의 골자만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북한 핵이 우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그리고 지역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위협이 되고 있고, 국민들의 약 62%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라, 물론 6자회담을 통해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6자회담에서 북한 핵이 해결되기 위한 그러한 뒷받침이 되거나 또 아니면 기여할 수 있는 그러한 정상회담이 되기 위해서 국민들의 과반수 이상이 적극적인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실태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도 8·15 경축사에서 한반도 종전선언과 평화체제를 논의할 때가 됐다 이런 말씀도 하셨고, 그다음에 통일부장관은 이 문제를 정상회담에서 논의할 것과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평화체제가 북한 핵 해결이 되기 전에 논의가 된다라면 북한 핵 해결을 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의 분산, 또 북한으로 하여금 평화체제 논의도 늦어졌다, 그다음에 종전선언도 늦어졌다 이렇게 해서 자꾸 북한 핵 해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자꾸 이월되면서 북한 핵 해결을 지체시킬 우려가 있다.

이런 점 등을 들어서 북한 핵 해결이 지체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려해서 그리고 북한 핵이 해결이 안 된 상태 속에서 종전선언이나 평화체제 이 자체는 그냥 선언적인, 아무 뒷받침이 없는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을 하고 우려를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 부씩 나눠드렸는데 장관께서 다시 한번 종전선언이라든지 평화체제 논의가 북한 핵 해결에 앞서서 논의가 되거나 이러지 않도록 확실한 입장을 택해 주실 것을 저희가 당부를 드리고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장관께서 입장을 한번 설명해 주시고 추가적인 말씀이 있으면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잠깐, 이것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거니까 답변은 비공개에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황진하 위원 아니 그냥 지금 말씀하시죠.

○국방부장관 김장수 황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역학관계, 함수관계는 충분히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성곤 그러면 비공개회의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32분 비공개회의개시)

(11시44분 비공개회의종료)

○위원장 김성곤 비공개회의를 공개회의로 전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오후 3시에 을지연습 참관을 위해서 용산 합참 군사종합상황실로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버스가 본청 국기 게양대 앞에서 정확하게 3시에 출발할 예정이오니 일정에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 위원(13인)

공 성 진	김 명 자	김 성 곤	김 송 자
김 학 송	맹 형 규	박 찬 석	원 혜 영
이 근 식	이 상 득	이 성 구	이 인 제
황 진 하			

○출장 위원(1인)

유 재 건

○청가 위원(1인)

안 영 근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권 대 수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정부측 참석자

국방부

장 관 김 장 수

정책홍보본부장 진 제 국

정 책 기 획 관 정 승 조

법 무 관 리 관 박 동 수

국 제 협 력 관 김 규 현

기 획 조 정 관 문 점 수